



'환경친화기업 지정', 'ISO14001 인증획득' 등을 통해 깨끗한 기업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현대자동차(주) 전주공장.

이곳은 제13회 대한민국환경관리장 금장 수상자인 환경안전팀 김영식 과장의 삶의 터전이다. '환경에 대한 사랑은 기업의 환경관리뿐만 아니라 지역환경보전에도 관심을 가지게 만든다'는 그를 자연이 왕성한 7월에 만나보았다.

(편집자 주)

현대자동차(주) 전주공장 환경안전팀 김영식 과장

## 과학적인 환경관리가 필요한 때

-전문환경지식과 기초데이터 준비해 나가야-



든든한 환경안전팀원들이 있어 업무수행이 순조롭다는 김과장은 의식에서 우려 나오는 환경관리를 강조한다.

"기업주의 환경마인드와 환경안전팀원들 노력의 결실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환경관리장 금장 수상에 대한 그의 소감이다.

생물학을 전공한 그가 수질환경관리기사 1급 자격을 취득하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입사, 수질환경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시작된 그의 환경관리 경력은 올해로 13년차인 중견환경인이다.

스스로 쟁기면서 일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환경팀원들의 수고가 많다고 말하는 김 과장은 팀원들이 자율성에 의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란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1994년 설립해 버스, 트럭, 엔진 등 연간 10만대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 1종, 수질 2종 사업장이다.

2800여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는 이곳은 대기 II 지역과 수질 특례지역으로 분류된 만큼 주변 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각별한 환경관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다.

전주공장 환경안전팀은 94년 환경부문을 신설한 이래 95년 총무 환경안전과, 96년 안전환경팀으로 분리 승격, 97년 환경안전팀 명칭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꾸준한 환경에의 관심으로 'ISO 14001 인증획득'과 '환경친화기업 지정'에 이르기까지 현대자동차의 환경사랑은 크게 확대되었다.

보다 쾌적한 환경속에서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기 위해 환경애착심을 발휘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99년부터 모약산 사랑운동, 1사 1하천 고산천 결연, 씩씩이 꽃축제 등 다양한 지역환경보전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

특히 사전오염방지를 위해 그룹내 '환경위원회'를 두고 오염방지 및 환경개선을 위한 정기적인 감사 및 오염발견시 즉각적인 대처를 위한 환경대책반을 가동하고 있으며, 프레온 가스 등 환경규제 물질 사용을 중단하고, 청정연료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 자체 소각장운영, 전기자동차와 연비향상 엔진 등 저공해 제품 개발, 협력업체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진단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친환경적인 생산을 모색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무엇보다 환경 경영 방침을 전직원 및 사내 협력업체에 이해시켜 환경보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금도 주말마다 사원이 순번으로 1산, 1하천 가꾸기에 참여하는 등 폭넓은 환경관리를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많은 환경관련 일을 총괄하고 있는 환경안전팀 김영식 과장은 환경정책 수립 시행, 환경설비 운영·지도점검, ISO 사후관리, 위험물·유독물 점검관리, 오염물질측정, 환경보전활동 추진, 환경안전사고 예방활동 등 꼼꼼하게 사내 환경을 관리하고 있다. 배출시설 및 오염측정은 대부분 자동화되어 있으며, 한 곳에서 모니터링 가능하도록 환경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과학적인 환경관리 이고파

김영식 과장은 공해로 심각한 특별대책지역인 울산에서 태어나 환경과파의 현실을 보며 자랐고 문제를 의식하고부터는 생물학을 전공하면서도 환경관련 과목에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대학 졸업과 동시에 수질환경관리기사 1급을 취득하고 본격적인 환경관련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초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은 관리인들이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하고 순간위기 모면의 자세를 취한다면 앞으로는 환경보전의 길이 막연해 질 것입니다."

여유있고 낙천적인 그의 성격에서도 직업관은 분명하게 묻어나고 있었다.

1960년부터 급속한 산업화를 이룩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환경에 대한 인식이나 투자를 고려하

지 않고 오직 경제발전을 위해 달려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 91년 3월 '낙동강 페놀사건'을 계기로 오늘날과 같은 환경관리 의식의 저변확대를 가져오기도 했다. 현재에 와서는 대기업의 경우는 대체로 환경경영이 순조로우나 중소기업들은 아직까지 생산에 환경이 밀리고 있는 실태다.

"영세업체의 환경관리 개선을 위해 좋은 환경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와의 자매결연으로 환경기술을 지원하고 동종 업체간 환경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전국 환경네트워크 구축이 절실한 상태입니다."라고 김 과장은 통쾌한 대안을 제시한다.

실제 그는 2000년부터 전라북도 기술지원단원으로 활동하면서 타회사의 환경관리업무에 대한 기술지원과 환경관리인의 위상강화에도 적극적이다.

최근 2년 동안 현대자동차에서 환경설비와 지역환경보전 활동을 위해 30여억원 투자, 18억원의 원가절감 효과를 가져온 사례를 경험으로 타 회사의 환경시스템도 지역환경보전에 빼놓을 수 없는 숙제라고 말하는 그.

이러한 문제를 공동으로 풀어가려는 노력은 현 기업이 당면한 최대의 환경과제로 보아진다.

이외에도 김 과장은 전북의제 21과 14001 시스템관련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전문환경인으로서의 진입을 위해 최근에는 원광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산업환경학 석사과정을 이수하기도 했다.

### 전문환경인으로 후학양성 하고 싶어

환경실무에서 나온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환경관련 박사 과정, 기술사 취득 등으로 전문환경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준비 중이다.

많이 배우고 익힌 다음에는 후학을 양성하고 싶다는 그.

지역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현 환경풍토를 정밀진단해 자료화 하고 공장지역의 여건에 맞는 환경관리를 할 때만이 향후 환경오염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지금도 그는 미래의 환경관리를 위해 현대자동차 소속 지역 생태환경을 기록화 하고 있다.

"주말이나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 조사를 해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향후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사전오염방지 시스템 구축에도 크게 도움되리라 봅니다."라고 말하는 그는 참으로 준비하는 환경인이다.

낙천적인 성격이라고 말하는 그가 환경관리에 대해 서만은 집착을 보이고 비전을 만들어가는 모습은 같은 환경관리인들에게 큰 위안을 준다.

'스스로의 몸값은 스스로 높이는 것'이라는 그는 "환경분야도 아는 만큼 보이는 직업이고 학문인 것 같습니다."라며 "이론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며 따로 공부를 해야 전문인이 됩니다." 라고 한다.

성격이 좋고 사람을 좋아하는 그가 만들어 가는 환경사랑은 인화와 단결속에서 만들어 질 수 있다는 말을 자주한다. 그래서 전북협의회 부회장으로 있으면서도 자주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쉬움 중의 아쉬움이라고 말한다.

자주 만나야만 길이 보인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기후변화협약 대비, 에너지 절감 등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그는 "천천히 가지만 분명하게 가야하는 길이 환경의 길"이라고 말한다.

한 번도 후회해 본적이 없다는 그는 오늘도 앞으로의 환경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좋은 팀원들을 만나고 좋은 회사를 만난 것에 감사한다고 말하는 그는 이제 다시 거듭나는 환경인이 되기 위해 비상하고 있다.

